

‘건강 지킴이’ 장성, 촘촘한 의료복지 눈에 띄네

감염병 예방, 여성·어린이 지원… 농촌왕진버스 등 주목

김한종 군수 “군민 건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군정 추진”

장성군의 촘촘한 의료 복지 정책이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다양한 의료 복지 정책 가운데 군민들의 반응이 가장 좋은 분야는 감염병 예방 관리다.

현재 군은 선제적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국가예방접종 관리, 감염취약주민 결핵 관리,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감염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끈다.

휴대용 방역장비 무상 대여, 임산부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등 촘촘한 지원도 펼치고 있다. 군은 올해 ‘감염병 관리 사업 평가’에서 전국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 표장을 받았다.

여성·어린이 특화 지원도 주목된다.

현재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매힘어 비대면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스마트워치’, 체중계, 혈압계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임산부의 건강지표를 측정하고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상시 확인한다.

출산 전 필라테스·임신·출산교실과 임신부를 위한 비대면 우울 관리 시스템 운영도 호응이 높다. 축제장 ‘스마트 수유실’ 설치, 다문화가정 전문상담, 119 안심콜 협력체계 확립 등 세심한 지원도 돋보인다.

최근에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로 이어졌다. 군은 올해 전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여성·어린이 특화 우수사례로 선정돼 2년 연속 수상을 기록



장성군은 선제적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국가예방접종 관리, 감염취약주민 결핵 관리,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삼계면 농촌왕진버스를 찾은 김한종 장성군수가 지역민과 학생들을 나누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병원 동행 서비스’ 모습.

했다. 올해 7월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아가는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했다. 평소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군이 주력하는 부분은 의료 접근성 향상이다. 올해 총 4회에 걸쳐 찾

거동이 불편해 혼자 병원에 갈 수 없는

어르신을 돋는 ‘병원 동행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가족·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65세 이상 주민에게 완복 치료와 동행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한종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군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활기차게 살아가는 장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형범 기자 lhb669@gwangnam.co.kr



지난 10월 27일 대통령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업, 대학 연구진 등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차세대 전력망 혁신 및 인재 양성·창업 생태계 구축 기업간담회’를 진행했다.

나주,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 본격 시동

肯텍 중심 오픈캠퍼스·분산에너지 실증 클러스터 구축
전력반도체 국산화 등 에너지 신산업 허브 구축 ‘속도’

나주시가 국가 전략 프로젝트인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 사업 예산을 최종 확보하며 차세대 전력망 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선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인재 양성, 창업 생태계 강화, 전력반도체 국산화 기반 구축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9일 시에 따르면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은 차세대 전력망(K-GRID)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국가 단위 프로젝트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肯텍)를 중심으로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전남대학교 참여하는 ‘오픈캠퍼스’ 체계를 마련해 교육·연구·실증을 연계한 전문 인재 양성이 추진된다.

사업은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특히肯텍 내에 구축되는 ‘분산에너지 실증 클러스터’는 차세대 전력망 기술 실증과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시설로 글로벌 K-에너지 스타트업 인력 양성을 통해 국내 청년들이 세계 에너지 기

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실무 중심 교육 환경도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벤처기업 육성, 글로벌 공동 연구 확대, 에너지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혁신기업이 자우롭게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 생태계를 확장한다. 이를 기반으로 나주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창업 허브의 성장도 기대된다.

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력반도체 분야를 국산화하기 위해 고전력반도체 기술 수명 시험 인프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 한 죽이다.

고전력반도체의 장시간 수명 보증을 위

한 평가 기술 고도화와 기업 지원 체계 마련은 국내 전력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27일에는 대통령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업, 대학 연구진 등 100여 명이肯텍에 모여 ‘차세대 전력망 혁신 및

인재 양성·창업 생태계 구축 기업간담회’를 열고 국가 전력산업으로서의 전력망 혁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계해 연구·기술개발·실험·인프라 등으로 이뤄지는 ‘에너지 자립 체계’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여기에 인공태양 연구시설 1순위 후보지 선정,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혁신도시 기반 에너지기업 집적지(에너지밸리) 등 기존 인프라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나주가 대한 민국 미래 에너지 신산업을 주도하는 전략 거점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차세대 전력산업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희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영암, 군서면민 문화·소통 공간 어울터 기공

내년 6월 준공…여가문화실·청년 체험활동실 등

영암군은 최근 군서오일시장 옆에서 면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서면 어울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공모에 따라 건립되는 군서면 어울터는 면 소재지의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 배후 마을 서비스 공급 등을 담당하는 주요 거점시설이다.

군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지상 1층, 연면적 781㎡ 규모의 주민 문화·소통 공간을 내년 6월까지 준공한다.

어울터에는 어르신 여가문화실, 청년 체험활동실, 행복건강실, 지역동아리방,



북카페 등이 조성된다.

우승희 군수는 “어울터가 군서면민의 자치공동체 공감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1년 365일 면민의 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지는 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함평엑스포공원 ‘겨울 동화마을’ 재탄생

호박마차·테킬라 포토존 등 빛 장식 강화

함평엑스포공원 다육식물관이 겨울빛 축제에 맞춰 새 단장을 마치며 겨울빛축제 분위기를 한껏 달구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2025 함평 겨울빛축제에 맞춰 다육식물관이 디채로운 조명과 조형물로 구성된 ‘겨울 동화마을’ 컨셉트로 재정비돼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하고 있다.

다육식물관 입구에서는 은은한 별빛을 머금은 공 조형물이 먼저 시선을 사로잡으며 겨울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다. 주변 화단에는 빛줄기 장식과 작은 광원들이 촘촘히 배치돼 방문객을 포근한

빛의 길로 안내한다.

특히 호박마차 포토존은 빛의 띠와 화려한 조화가 어우러져 동화 속 장면을 그대로 웃겨놓은 듯한 환상적인 공간을 연출한다.

또한 전시관 곳곳에는 판다·코끼리·토끼 등 동물 모형과 작은 조명구, 수국 장식이 함께 배치돼 아기자기한 동화 속 마을을 거닐는 듯한 느낌을 전달한다. 이상익 군수는 “빛과 희망이 기득한 다육식물관 ‘겨울 동화마을’에서 올겨울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오는 18일 GS칼텍스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여수시립합창단

2025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연말 시즌의 대표 레퍼토리이자 세계 3대 오라토리오로 꼽히는 헨델의 ‘메시아’를 선보인다.

12월이 되면 국내 주요 공연장에는 헨델의 ‘메시아’가 경쟁하듯 무대에 오른다. 전국적인 메시아 열풍 속에서 여수시립합창단도 남도 지역 시민들에게 이 불멸의 명작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에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정상급 성악가들이 솔리스트로 참여하며, 소프라노 한경성,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김효종, 바리톤 박정민이 각각의 소리로 작품의 서사를 이끌어간다. 또 품격 있는 사운드로 인정받는 오케스트라 누오비

무지케가 협연해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들려줄 예정이다.

1741년 작곡된 헨델의 ‘메시아’는 총 53곡, 약 2시간 20분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려낸 대작이다.

제1부 ‘예언과 탄생’, 제2부 ‘수난과 속죄’, 제3부 ‘부활과 영생’의 3부 구조로 이뤄져 있으며, 특히 2부의 ‘할렐루야’ 합창은 영국 왕 조지 2세가 감격해 벌떡 일어났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 부문에서 관객이 기립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티켓은 전석 5000원이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약자, 학생은 20% 할인된다. 공연 관련 문의는 여수시립합창단 사무실(061-659-5681)로 하면 된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여수시립합창단, 18일 ‘송년음악회’ 개최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로 감동 대서사시 선사 예정

여수시는 오는 18일 GS칼텍스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여수시립합창단

2025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연말 시즌의 대표 레퍼토리이자 세계 3대 오라토리오로 꼽히는 헨델의 ‘메시아’를 선보인다.

12월이 되면 국내 주요 공연장에는 헨델의 ‘메시아’가 경쟁하듯 무대에 오른다. 전국적인 메시아 열풍 속에서 여수시립합창단도 남도 지역 시민들에게 이 불멸의 명작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에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정상급 성악가들이 솔리스트로 참여하며, 소프라노 한경성,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김효종, 바리톤 박정민이 각각의 소리로 작품의 서사를 이끌어간다. 또 품격 있는 사운드로 인정받는 오케스트라 누오비